새 국면 프로야구 FA시장 '대어' 김선빈 외 한파 여전

미계약 10명…전체 몸값도 떨어져

프로야구 FA시장이 대어들의 연이은 계약 소식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거품이 빠진 가운데 남은 10명도 이 흐름과 무관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FA신청자 19명 중 단 6명(키움 이지영, KT 유한준, 한화 정우람, LG 오지환, 송은범, 진해수)이 계약에 성공해 역대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FA시장이 새해를 맞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대어 중 한 명인 안치홍이 지난 6일 롯데 자이언츠와 2+2년 보장 20억원, 최대 56억원에 전격 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거물 전준우가 8일 원소속팀 롯데와 4년간 34억원에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베테랑 내야수 박석민도 NC 다이노스와 2+1년 최대 34억원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몇 년 100억원이 넘거나 8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계약이 나온 것에 비해 몸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구단들은 이전에 비해 냉정한 기조를 유지했고 여론 역시 FA 거품 줄이기 행보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에 남아 있는 10명의 FA 자격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중 대어로 꼽힌 김선빈(KIA) 정도만 큰 규모의 계약이 가능하고 타 구단 이적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머지 9명은 FA 한파를 그대로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김선빈은 원소속팀 KIA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행보는 유동적이다. 여전히 몇몇 구단이 정상급 내야수 김선빈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고 안치홍의 경우처럼 급진전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준척급 이하로 분류되는 9명은 대부분 원소속팀 잔류가 유력하다. 그나마 협상이 잠시 멈췄던 연말과 달리 새해에는 물밑 움직임이 이어지는 중이다.

SK는 베테랑 외야수 김강민과 두 번의 협상을 거쳐 계약 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고 세부 조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어 전준우를 잡은 롯데는 베테랑 투수 손승락, 고효준과 협상이 남아 있다. 두 번째 FA를 신청한 손승락과 데뷔 첫 FA 자격을 행사한 고효준 모두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림돌로 꼽힌다. 무엇보다 비시즌 성민규 단장 체제로 선수단 운영의 기조를 바꾼 롯데 입장에서 두 선수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니다.

역시 베테랑 3명(김태균, 이성열, 윤규진)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 역시 아직 확실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태균처럼 상징성이 크고, 지난 시즌 캡틴으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성열이지만 냉정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키움 불펜투수 오주원 역시 다르지 않은 상황. 아직 협상에 진척은 없다. 지난 시즌 중반 마무리 투수 역할까지 맡았지만 구위와 미래가치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두산 내야수 오재원은 현재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을 남겼지만 한국시리즈 등 결정적 순간 빛나며 베테랑 역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예상되는데 계약 시기는 그의 귀국 이후가 될 전망이다.

포수 김태군도 원소속팀 NC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개시 초반과 달리 외부영입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가운데 김태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졌다. NC 입장에서 주전 양의지에 김형준 등 미래자원이 든든한 상황이라 김태군 활용도가 크지 않다. 다만 잔류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상황이다.

프로농구 올스타전 '허훈 vs 허웅' 형제 맞대결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허훈(KT)과 허웅(DB) '형제' 맞대결이 성사됐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팬 투표 1위 허훈이 이끄는 '팀 허훈'에는 김종규(DB), 김준일(삼성), 정희재(LG), 김낙현(전자랜드), 라건아, 송교창, 이대성, 이정현(이상 KCC), 박지훈(KGC), 김현민(KT), 김국찬(현대모비스)이 선발됐다.

'팀 김시래'에는 허웅을 비롯해 이관희(삼성), 김동량, 캐디라렌(이상 LG), 김선형, 전태풍, 최준용(이상 SK), 이승현(오리온), 양홍석(KT), 리온 윌리엄스, 양동근(이상 현대모비스)이 뽑혔다.

올스타전은 오는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뉴스1

프로축구 '광양 루니' 이종호, 친정팀 전남 컴백

"고향팀 돌아와 기뻐…승격 이룰 수 있도록 최선"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청명)가 '광양루니' 이종호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강화했다.

이종호는 지난해 울산 현대 소속으로 일본 J2리그 V 바렌 나가사키에서 임대생활을 했다.

아직 울산과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공격력 강화를 위해 다섯 시즌 만에 다시 친정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광양 루니'로 불리는 이종호는 광양제철중·고를 거쳐 2011년 전남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량과 투지 높은 공격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며, 좌우측면과 전방에서 전남의 공격루트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는 "고향팀 전남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 비록 전남이 2부리그에 있지만 올 시즌 말에는 승격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경기장을 많이 찾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마지막 앞둔 'LG맨' 박용택 "우승택으로 마무리 하고파"

"우승하면 모든 것 다 한다…의미 있는 이벤트도 고려"

2020시즌 후 현역 은퇴를 예고한 베테랑 타자 박용택(41)에게 더 이상 개인목표는 없다. 오직 팀 우승만을 희망한다고 밝힌 그는 특별한 공약까지 제시했다.

LG 트윈스의 상징과도 같은 박용택은 2020시즌 후 은퇴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02년 데뷔해 LG 한 팀에서만 뛰며 수많은 역사를 함께한 박용택은 2019시즌을 앞두고 2년간 총액 25억원에 재계약했다.

리그 최다안타 기록(2439개)의 주인공이지만 지난 시즌 커리어 처음으로 각종 부상 탓에 결장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한 박용택은 현역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박용택은 "이번 신년하례식은 기분이 다르다. 선수로서 이 행사 의자에 앉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상당히 센티하다"며 "비시즌이 정말 빨리 가더라. 올해 10월, 11월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용택은 이 자리에서 거듭 "2020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팀 우승이 목표"라고만 말했다.

데뷔 첫해(2002)부터 한국시리즈를 경험했지만 박용택은 아직 우승 경험이 없다. 많은 선수들이 바라듯 선수생활을 마치기 전에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을 터. 박용택은 "새 시즌, 제 19년 선수생활 중 가장 우승확률이 높은 시즌이 아닌가 싶다. 전력상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선수 구성이 괜찮고 팀 역시 창단 3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우승의지에 차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의미 있는 공약도 제시했다.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박용택은 "(우승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시키면 다 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어 박용택은 몇 년 전 배우 하정우가 시상식 수상 공약으로 멤버들을 꾸려 국토대장정에 나선 일화를 방송을 통해 들었다며 "나도 소수정예로 33명(박용택 등번호 33)과 함께 전국에 있는 야구장을 다 도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벤트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그만큼 우승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박용택은 "제가 별명이 많지 않나. 올해는 '우승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거듭 의지를 전했다.